



니치렌 대성인의 생애

니치렌 대성인은 (1222~82)은 일체중생이 자신에게 내재한 불성을 열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흔들림없는 자비의 행동을 계속하며 묘법인 남묘호렌게교를 유포하는데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일생 동안 고난과 박해가 뒤따랐지만 민중의 행복을 저해하는 악을 소멸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초창기

니치렌 대성인은 1222년 2월 16일 아와 지방 나가사 군 도조 마을의 어촌<현재 지바 현 아와 군 아마쓰의 고미나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성인은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서민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12살 때 아와 지방의 세이초 사(淸澄寺)에 들어가 당시의 초등 교육을 받으며, 『일본 제일의 지자(知者)가 되게 하소서』(어서 888쪽)라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생사의 근본적인 괴로움을 극복하여 부모는 물론 전 민중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끌고자 불법을 공부하며 지혜를 탐구하였습니다.

16세 때 불법을 구명하기 위해서 세이초 사의 도젠보(道善房)를 스승으로 하여 득도하고, 모든 불법의 근저라고 해야 할 부처가 깨달은 법인 ‘묘법(妙法)’의 지혜를 얻으신 후 <세이초사대중중(淸澄寺大衆中)> 어서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마쿠라, 교토, 나라, 천태종의 본산인 히에이 산에 있는 엔라쿠지와 같은 여러 큰 사원을 돌면서 유학을 시작하여 일체경을 정독(精讀)함과 동시에 소승, 대승 각 종파의 교의의 본질을 검증한 결과, 법화경이야말로 석존이 설한 일체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전이며, 내가 깨달은 묘법은 법화경 간요(肝要)의 법인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이고, 석존 멸후에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으로 남묘호렌게교를 넓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종 선언

이러한 유학으로 묘법 흥통에 대한 사명과 방도를 확인하신 대성인은 대난을 각오하시고 묘법 흥통의 실천에 착수할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그리고 1253년 4월 28일 정오, 세이초 사의 지불당(持佛堂)에서 염불 등을 파정함과 동시에 남묘호렌게교를 드높이 부르며, 말법의 민중을 구제하는 유일한 정법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입종 선언’입니다. 당시 대성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렌초라는 이름을 바꾸어 스스로 ‘니치렌(日蓮)’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입종 선언 때에 염불을 엄하게 비판한 대성인에 대해 세이초 사를 옹호하는 아와 지방 도조 마을의 지두(地頭)이자 염불종의 강신자인 도조가게노부(東條景信)는 몹시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가게노부가 대성인의 신변을 위협했기 때문에 대성인은 세이초 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가게노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대성인은 막부의 본거지인 가마쿠라로 가서 나고에에 있는 마쓰바가야쓰에 초암을 마련하여 흥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가마쿠라에 퍼져 있는 염불종과 선종의 파절에 주력하면서 법화경의 정의를 설하고 남묘호렌게교의 제목을 부르며 넓히셨습니다.

이 때 잘 알려진 도키조닌, 시조깡고(시조 요리모토) 그리고 이케가미 무네나카 등이 대성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입정안국론> 제출과 법난

대성인이 가마쿠라에서 홍교를 시작하셨을 당시 매년처럼 기상 이변과 대지진 등 천재지변이 잇따랐고 대기근, 대화재, 역병 등도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1257년 8월에 가마쿠라 지방을 덮친 대지진은 가마쿠라에 있는 중요한 건물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대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사람들을 고뇌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이러한 대 재난이 계기가 되어 대성인은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밝히시고 그것을 근절하는 방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입정안국론>을 쓰시고 1260년 7월 16일, 당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던 호조도키요리(北條時頼)에게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이 제1회 국주 간효(國主諫曉)입니다.

<입정안국론>에서는 먼저 천재지변이 계속되는 원인은 온 나라 사람들이 정법에 등을 돌리고 사법(邪法)을 믿기 때문이며 그 원흉은 호넨(法然)이 설하기 시작한 염불에 있다고 지적하시고 그 일흉을 단절하고 정법을 신수(信受)한다면 평화 낙도가 현실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문에 나타나 있는 재난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계반역난(自界叛逆難: 내란)과 타국침핍난(他國侵逼難: 타국의 침략)의 두 가지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속히 정법에 귀의하라고 간효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부의 요인은 대성인의 지성이 담긴 간효를 무시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염불자들은 은밀하게 막부 요인의 승인을 받아 대성인에게 박해를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60년 8월 27일 밤, 집권 호조나가토키의 아버지 호조시게토키를 등에 업은 염불자들이 대성인을 없애려고 마쓰바가야쓰의 초암을 덮쳤습니다. 이것이 <마쓰바가야쓰 법난>입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탈출한 대성인은 잠시 가마쿠라를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이듬해 1261년 5월 12일, 막부는 가마쿠라로 돌아오신 대성인을 체포하여 이즈의 이토로 유죄(流罪)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이즈 유죄>입니다. 1263년 2월 이즈 유죄에서 사면되어 가마쿠라로 돌아오신 대성인은 이듬해에는 병든 노모를 방문하기 위해 고향인 아와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1264년 11월 11일, 대성인 일행은 아와 지방 아마쓰에 있는 구도요시타카의 저택으로 향하는 도중 고마쓰바라에서 지두인 도조가게노부의 군사에게 습격을 당하셨습니다. 이때의 전투에서 제자 교닌보와 신도인 구도요시타카가 사망했을 뿐 아니라 대성인도 이마에 상처를 입고 왼팔이 부러지셨습니다. 이것이 <고마쓰바라 법난>입니다.

다쓰노구치 법난과 발적현본

1268년 윤1월, 몽고에서 보낸 국서가 가마쿠라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몽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성인은 <입정안국론>에서 예언하신 타국침핍난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막부는 대성인의 주장을 묵살하였으므로 대성인은 10월에 당시의 집권자 호조도키무네를 비롯한 막부 요인 그리고 고쿠라쿠 사(極樂寺) 료칸(良觀), 겐초 사(建長寺) 도류(道隆) 등 가마쿠라의 여러 큰 사원의 승려 등 모두 11곳에 서장을 보내어(<십일통어서(十一通御書)>) 타국침핍의 위험은 <입정안국론>에 예언한 대로이니 자신과 공장 대결(公場對決: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법론)을 하자고 외치셨습니다.

대성인의 이런 제의에도 불구하고 막부도 타종도 성의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막부는 대성인의 교단을 위협시하며 어떻게 탄압할 것인지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1271년 여름, 전국적으로 대한발이 몰아쳤을 때 대성인은, 막부와 결탁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진언율종의 승려 고쿠라쿠 사 료칸이 기우제를 지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누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로 승부를 가리자고 료칸에게 제의하였습니다.

즉 만약 료칸이 7일 안에 비를 내리게 하면 대성인이 료칸의 제자가 되고 만약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하면 료칸이 대성인에게 귀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료칸이 기우제를 실시했던 6월 18일부터

7일동안 비는 한번도 내리지 않았고 이에 료칸은 7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제의한 후 다시 기우제를 지냈으나 연장한 7일 동안에도 비는커녕 폭풍만 불어닥쳐 료칸은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료칸은 패배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성인에게 더 한층 깊은 원한을 품게 되어 부하인 염불승 교빈(行敏)의 이름으로 대성인을 고소하고 막부요인과 그 부인들에게 손을 써서 권력으로 대성인을 탄압하고 획책하였습니다.

료칸은 당시 사람들에게 불법을 터득한 고승으로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과 결탁하여 이익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9월10일, 막부로부터 호출된 대성인은 사무라이도 로코(侍所: 무사를 단속하는 관청)의 소사(所司: 차관)인 헤이노사에몬노조요리쓰나(平左衛門尉頼綱)에게 심문받았습니다. 그때 대성인은 헤이노사에몬노조에게 불법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나라를 안온하게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설득하여 간효하였습니다.

이틀 후인 9월 12일 저녁, 헤이노사에몬노조가 무장한 병사들을 인솔하고 마쓰바가야쓰 초암을 유린, 대성인을 역적처럼 취급하며 체포하였습니다. 이때 대성인은 헤이노사에몬노조를 향해 ‘일본의 기둥’인 대성을 박해한다면 반드시 자계반역·타국침핍의 두 가지 난이 일어난다고 말하며 강하게 간효하였습니다. 막부에 연행된 대성인은 사도(使渡)로 유죄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헤이노사에몬노조는 은밀하게 대성인을 참수형에 처하려고 획책하였습니다.

대성인은 한밤중에 가마쿠라의 변두리에 있는 다쓰노구치의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막 집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에노시마 방향에서 ‘동그란 공모양’의 광채가 북서쪽으로 밤하늘을 가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사들은 그 물체를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여 참수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쓰노구치 범난>입니다.

이 일은 대성인 자신의 일대(一代) 홍교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대성인은 다쓰노구치 범난 때에 명자범부(名字凡夫)라는 적(迹:임시 모습)을 열고 범부의 몸이라는 당체에 구원원초(久遠元初) 자수용보신여래(自受用報身如來)라는 본지(本地: 본래의 경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발적현본(發迹顯本: 적<迹>을 열어 본<本>을 나타냄. 본문 50쪽 참조)’이라고 합니다.

이 발적현본 이후 대성인은 말법의 본불(本佛)로 서게 되셨으며 만인이 근본으로서 존경하고 자신의 근원으로 신수해야 할 만다라(曼荼羅) 본존님을 도현하였습니다.

사도 유죄

대성인을 다쓰노구치에서 처형하는 데 실패한 막부는 그 후로도 대성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약 1개월 동안 대성인은 사가미 지방의 에치<현재 가나가와 현 아쓰키 시 북부>에 있는 혼마로쿠자에몬(本間六郎左衛門: 사도 지방의 차안 경비 담당자)의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가마쿠라에 있던 대성인의 제자들은 방화, 살인 등 부당한 혐의를 받으며 여러가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도로 유죄를 보내기로 최종 결정되어 대성인은 1271년 10월 10일에 에치를 출발하여 11월 1일에 사도의 쓰카하라라는 묘지에 있는, 다 쓰러져 가는 삼매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혹한의 기후에 옷과 음식도 부족하였으며 대성인의 목숨을 노리는 사도의 염불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1272년 1월 16일, 사도뿐 아니라 호쿠리쿠·신에쓰 등에서 여러 종파의 승려들 수백 명이 모여서 대성인에게 법론 도전을 해 왔지만 대성인은 오히려 각 종파의 사의(邪義)를 모조리 논파(論破)하셨습니다. 이것이 <쓰카라하 문답>입니다.

또 2월에는 호조 일문(一門)에서 내분이 일어나 가마쿠라와 교토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2월 소동>. 대성인이 다쓰노구치 범난 때 예언한 자계반역의 난이 불과 150일 후에 현실로 된 것입니다.

그 해 초여름에 대성인의 귀양지는 쓰카하라에서 이치노사와로 옮겨졌지만 염불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닛코 상인은 대성인에게 상수급사(常隨給仕)하며 고난(苦難)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사도의 땅에서도 대성인에게 귀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부쓰보(阿佛房)와 부인인 센니치 등입니다.

또 대성인은 사도에서 중요한 어서를 많이 저술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어서로는 <개목초(開目抄)와 <관심의 본존초(觀心本尊抄)>를 들 수 있습니다.

1272년 2월에 저술하신 <개목초>는 니치렌 대성인이야말로 주사친(主師親)의 삼덕(三德)을 갖추신 말법의 본불님임을 밝히셨기 때문에 ‘인본존개현(人本尊開顯)의 서(書)’라고 합니다.

또 1273년 4월에 저술하신 <관심의 본존초>는 말법의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 수지해야 할 南無妙法蓮華經의 본존에 대해 설하여 밝히시고 있어 ‘법본존개현(法本尊開顯)의 서(書)’라고 합니다.

1274년 2월 대성인은 사면되어 3월 13일에 사도를 출발, 가마쿠라로 돌아오셨습니다.

4월에 헤이노사에몬노조와 대면한 대성인은 사법(邪法)으로 몽고를 막겠다는 기도는 실행하지 말라고 막부에 강하게 간효함과 동시에 헤이노사에몬노조의 질문에 답하여 금년 내에 반드시 몽고와 침략해 올 것이라고 예언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같은 해 10월에 몽고의 대군이 규슈를 습격했습니다. 이것이 1차 몽고침략이며, 1281년 5월에 2차 몽고침략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자계반역난·타국침핍난의 두 가지 예언이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대성인은 ㉠<입정안국론(入正安國論)>의 제출에 의한 간효와 예언 ㉡헤이노사에몬노조가 체포하러 왔을 때의 간효와 예언 ㉢사도 유죄의 사면 후 막부에 대한 간효와 예언, 이 3가지를 ‘세 번의 고명(高名)’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미노부 입산

사도 유죄 후의 간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니치렌 대성인은 ‘세 번 나라를 위해 간효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림(山林)에 들어가라’는 고사에 따라 가이 지방<현재 야마나시 현> 하키리의 미노부 산(身延山)에 들어가실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미노부는 닛코 상인의 교화로 대성인의 문하가 된 하키리쿠로사네나가(澁木井六郎實長)라는 지두가 다스리던 곳입니다.

대성인은 1274년 5월 17일에 미노부의 하카리사네나가의 저택에 도착, 6월 17일에는 미노부 산 속에 검소한 암자를 지어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대성인의 미노부 입산(入山)은 단순한 은거가 아니었습니다. 미노부에서 대성인은 영법구주(令法久住)를 위해 <선시초(撰時抄)> <보은초(報恩抄)>등 다수의 어서를 집필하여 대성인 불법의 인류사적 의의를 설하여 밝혔을 뿐 아니라 법화경 강의 등을 통하여 미래의 광포를 짚어질 인재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또 어소식(御消息: 문하에게 보내는 편지)을 많이 쓰시어 재가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을 격려하고 각자가 인생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셨습니다.

아쓰하라 법난과 대어본존 건립

니치렌 대성인께서 미노부에 입산하신 후에 스루가 지방<현재 시즈오카 현>의 후지마면에서는 닛코상인을 중심으로 절복·홍교가 진척되어 천태종등의 승려와 신도가 지금까지 믿던 신앙을 버리고 대성인에게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종래의 천태종 사원인 시주쿠원(四十九院)과 짓소 사(實相寺) 등에서 박해를 자행하기 시작하였고 아쓰하라의 류센 사(瀧泉寺)에서는 원주대(院主代) 교치(行智)가 책모를 꾸며 농민 신도를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79년 9월 21일, 아쓰하라의 농민 신도 20명이 원주(院主)의 눈에 침입하여 벼를 훔쳤다는 억울한 죄로 체포되어 가마쿠라로 연행되었습니다. 농민신도는 사무라이도코로의 소사(所事)인 헤이노사에몬노조의 사택에서 혹독한 취조를 받으며 법화경에 대한 신심을 버리라고 협박당했지만 모두가 굴하지 않고 신앙을 관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시로(神四郎), 야고로(彌五郎), 야로쿠로(彌六郎)의 삼 형제가 처형당하고 나머지 17명은 추방되었습니다<10월 15일, 일설에는 이듬해 4월 8일>. 이것이 <아쓰하라 법난>입니다.

대성인은 농민 신도들이 보인 불석신명(不惜身命)의 모습에서 대난을 견뎌 내는 강성한 신심이 민중 차원으로 정착되었음을 느끼시고 10월 1일에 저술하신 <성인어난사>에서 ‘출세(出世)의 본회(本懷)’ 를 이룰 때가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대로 1279년 10월 12일에 일염부제총여(一閻浮提總與: 전 세계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뜻)의 대어본존을 건립하셨습니다.

‘출세의 본회’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목적이라는 뜻으로, 대성인이 말법이라는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말법 만년(末法万年)의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자신의 대원(大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쓰하라 법난에서 민중의 강성한 신심에 호응하여 1279년 도현하신 대어본존은 모든 민중을 구제한다는 니치렌 대성인의 대원을 담아 광선유포를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닛코상인에 대한 부촉 그리고 입멸

1282년 9월, 대성인께서는 대성인 일대에 설하고 넓히신 모든 법문과 일염부제총여의 대어본존을 닛코상인에게 부촉하시고 광선유포의 사명과 책임을 의탁하셨습니다. 9월 8일 대성인은 제자들의 권유로 히타치 지방<현재 이바라키 현 북부와 후쿠시마 현 남동부>으로 온천 요양을 위해 9년 동안 거주하셨던 미노부 산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시 지방<현재 도쿄>의 이케가미무네나카(池上宗仲)의 저택에 머무르시며 후사(後事)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9월 25일에는 병든 몸을 무릅쓰고 문하들에게 <입정안국론>을 강의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성인의 마지막 설법이 되었습니다.

10월 13일 대성인은 입멸에 앞서 다시 한 번 닛코 상인에게 부촉을 하시고 이케가미무네나카의 저택에서 61세로 법화경 행자의 존귀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대성인 입멸 후 오로지 닛코 상인만이 대성인의 엄한 유지를 받들어 광선유포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대성인의 후계자라는 자각아래 닛코 상인은 방법을 책하고 막부의 잘못을 지탄하셨습니다. 또한 대성인이 쓰신 모든 편지를 ‘어서’ 라고 이름하여 한 편 한 편 소중히 간직하고 말법의 소중한 자료로서 제자들이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닛코 상인 역시 불도수행과 교학에 진력하는 수많은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셨습니다.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생애 연표

1222	2월 16일: 아와 지방 나가사 군 도조 마을 어촌에서 탄생 (1세 - 당시 일본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했음)
1253	(32세) 4월 28일: 세이초 사에서 입중 선언
1260	(39세) 7월 16일: <입정안국론>을 호조도키요리에게 제출하여 막부에 간효함. 최초의 국주간효. 곧이어 염불종 승들의 공격을 받음 (마쓰바가야쓰 법난)
1261	(40세) 5월 12일: 이즈 지방 이토에 유죄됨 (이즈 유죄)
1264	(43세) 11월 11일: 고마쓰바라 법난
1268	(47세) 10월 11일: <십일통어서>를 저술하시어 가마쿠라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보냄
1271	(50세) 9월 12일: 다쓰노구치 법난. 직후 제자들을 위해 어분존을 서사하기 시작함 10월 10일: 사도 유죄 시작
1272	(51세) 1월 16일: 쓰카하라 문답 2월: <개목초>를 저술
1273	(52세) 4월 25일: <관심의 본존초> 저술
1274	(53세) 3월 26일: 사도 유죄에서 사면되어 가마쿠라로 돌아옴 4월 8일: 헤이노사에몬노조와 만나 연내에 몽고의 침략이 있을것이라 예언 5월 17일: 미노부 입산 10월: 몽고가 큐슈 남부지방의 섬을 공격 (제1차 몽고침략)
1279	(58세) 9월 21일: 아쓰하라의 농민 신도 20명이 체포됨(아쓰하라 법난)
1281	(60세) 5월: 몽고의 큐슈 침략 (제2차 몽고침략)
1282	(61세) 10월 13일: 무사시 지방 이케가미의 이케가미 무네나카의 저택에서 대성인 입멸